

# 진보 텃밭... '5선도전' 심상정에 한창섭·김성희 '도전장'

## 22대 총선 격전지

### 경기북부 고양갑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상징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4선)이 경기 고양갑에서 '진보정당 최다선'이라는 자신의 기록을 연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의 당세 약화로 인한 기회를 한창섭 국민의힘·김성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잡기 위해 3자구도를 연출할 전망이다.

고양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인 주교동·원신동·흥도동·성사1~2동·고양동·관산동·화정1~2동과 일산 신도시 일부인 석사동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은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유시민 전 작가를 당선시켰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심 의원을 3번 선택할 만큼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개혁적인 공약을 들고 개인기로 선거를 돌파한 결과 심 의원이 4선 고지에 오르며 지역의 입지를 다졌다.

#### ◆처음 겪어보는 미미한 당세, 심상정 돌파할 수 있나

지역구 투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한창섭



김성희



심상정

독자노선 녹색정의당 심상정 철도중심·녹색도시 만들것 與, 정치신인 한창섭 출사표 서울 편입 등 공약 내세워

野, 뉴페이스 김성희 후보 경의선 도심 지하화 등 목표

정의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9.67%를 득표했으나, 실제로 배분된 의석은 5석에 불과했다. 여기에 고양갑에서 당선된 심 의원을 합쳐 총 6석으로 21대 국회 4년을 치렀다.

류호정 개혁신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의 이탈 논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파문, 민주당 2중대 논란을 겪으며 그 동안 선명한 진보정치로 유권자들을 설득했던 정당의 존재는 미미해져갔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일원들이 제3지대 정당으로 옮겨가는 일도 생겨났으며, 녹색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형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중이다.

다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신당이 우후죽순 처럼 생기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극단적 정치가 유권자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20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녹색정의당은 1.7%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미래 35.3%,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당연합

1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3.3% 순이었다. 원내 6석의 녹색정의당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총선 때까지 유지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장벽인 3%를 넘지 못해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일 고양 시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출마 선언식에서 경기고양갑을 "철도중심도시와 녹색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관료 출신 '한창섭'·국회 출신 '김성희' 도전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이자 32년간 공직에 몸 담은 한창섭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를 당하자, 직무를 대리한 바 있다.

정치신인인 한 후보는 ▲서울 편입 ▲시청 이전 전면 재검토 ▲고양시 철도 및 광역 교통 확충을 통한 교통 혁신 ▲재건축, 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통한 도시정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발표할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고양갑 민주당 후보였던 문명순 전 지역 위원장과 김성희 후보를 경선을 붙여서, 김 후보에게 공천장을 줬다. 김 후보는 신계륜·정청래·손혜원 의원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유튜브 '김성희의 오피스 소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약 2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정치 유튜버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경기 고양 갑을병정에 공천된 후보와 함께 고양 발전을 위한 ▲경의선 도심 구간 지하화 ▲제1자유로 대심도 추진 ▲고양페이 ▲고양시청 이전 원안 존치 등의 공약 발표를 할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어르신 위해 공공임대 매년 3000호 공급” 이종섭 자진귀국에 민주, 수사 촉구

尹, 스물 두번째 민생토론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등 주거·식사·의료·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종합대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주거 문제와 관련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기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1000호씩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보급하겠다며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주택 형태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꼽으며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시설을 갖추고 의료·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시설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방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요양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도 현재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인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과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1670개소 ‘미등록 경로당’도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양성화하고 난방비, 양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65세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원주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홍익표 의원 등 공항 달려가 외압·대통령 개입 의혹 규탄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아우 속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전 장관의 자진 입국은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번 도착 게이트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이 전 장관은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제가 이미 수사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입시귀국한 것은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향후 일정과 관련해 방산협력 관련 업무로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다음주는 한국과 호주간 기획된 2+2 회담 준비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말씀드린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대사로써 해야 할 중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요한 의무다. 그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추가로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준비돼 있던 차를 탔다.

이 전 장관의 해임과 즉시 귀국을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과 더불어민주당연합 본부장단이 인천국제공항을 새벽부터 찾아 이 전 장관의 귀국을 기다렸다. 민주당에선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김민석 상황실장, 한준호·오기형 의원, 노종면·모경중·안귀령 후보 등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연합에선 강민정·이동

주 의원, 박홍배, 최혁진, 한창민 비례대표 후보가 자리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입국과 동시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었다.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하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의 귀국에 따라 일정도 연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로 복귀해 이 전 장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호주 대사 임명을 규탄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에 외일어나고 누구에 의해 사건이 은폐되고 외압으로 좌절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권력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 해서 뜻을 이룬 적 없다”며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이 그렇다. 오히려 그 책임과 시만의 강도만 더 커질 뿐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가 처벌받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해임과 수사를 촉구 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개입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2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86-97, 186-102, 186-82  
 소유주 : 이경순, 전수정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공고인 : 협성설비(주)  
 연락처 : 조규준 010-9011-9304

2024. 3.22

/박태홍 기자 pth7285@